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언론의 기사근거 제공과 익명 정보원 사용*

이상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뉴스 프레임 간 경쟁 양상을 검토하고, 프레임 경쟁 수준에 따라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했다. 특히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프레임 조정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객관주의적 관행을 답습하는 데 집중하는지 검토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벌어진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한 뉴스를 분석한 결과, ‘밥그릇 프레임’, ‘견제와 균형 프레임’, ‘국민 인권 프레임’, ‘수사 지휘 프레임’ 등 4개 프레임을 발견했다. 이 프레임들의 등장 빈도와 다양성을 기준으로 프레임 경쟁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후, 경쟁양상에 따라 사실 문장을 사용하는 정도와 정보원 및 익명정보원 사용 정도를 검토했다. 분석결과, 한국 언론은 프레임 경쟁기에 사실 문장을 더욱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정보원을 더 많이 사용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등 기사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프레임 경쟁 시기에 따른 익명정보원 수 및 익명정보원 진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타당성 전략의 변화로 설명하고, 이런 언론활동이 속의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했다.

Keywords: 뉴스틀, 틀짓기, 프레임, 프레임 경쟁, 프레임링 전략, 기사 타당성, 익명정보원, 검경 수사권, 프레임 역학

* 이 논문은 이상률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연구(2014. 2)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지원을 일부 받았음을 밝힙니다.

** jvrhee@snu.ac.kr,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프레임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공공담론을 반영하는 해석적 틀이다(Gamson, 1992; Gamson & Modigliani, 1989). 뉴스 내에서 공공담론을 반영한 각각의 프레임들은 사안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형성하는 가치 및 해석들을 내포하고,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 사이에서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뉴스 프레임에는 소속 집단의 주장과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치 집단들의 전략들이 반영된다(Bennett, 1996; Entman, 2004). 그러므로 언론이 프레임 경쟁에 따라 제시하는 보도양식을 검토함으로써 갈등적 현실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프레임 경쟁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프레임 선택에 대한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론장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숙의민주주의에서 언론이 가지는 본질적인 임무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한다(Althaus, 2003). 프레임 경쟁을 통해 지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언론은 비로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사안에 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론장을 통한 대중들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진다. 프레임 경쟁은 곧 언론을 통한 공적 숙의를 실현케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국내 프레임 연구들은 그 동안 주요한 사회적 사건들을 토대로 언론의 프레임링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 연구는 대부분 언론이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특정 프레임을 양산하는 언론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분쟁 사태’(권혁남, 2001; 박경숙, 2002; 양정혜, 2001)나 ‘핵폐기장 유치 문제’(김원용·이동훈, 2005; 나미수, 2004), ‘용산 참사 사건’(임양준, 2009) 등 연구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연구는 갈등적 사안을 다루는 언론이 갈등의 본질을 왜곡시켜 보도하면서 사실을 전달하고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공한다. 현실을 재구성하는 언론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들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기존 국내 프레임 연구들은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프레임 경쟁 과정보다 프레임 지배 상태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는 프레임 지배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프레임 경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프레임 경쟁과 지배가 교차되는 시기의 언론의 보도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레임 경쟁과 지배의 전환 시기에 언론의 보도양식을 검토함으로써 언론이 공적 숙의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이 취하는 보도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속의에 대한 기여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다.

2. 프레임 경쟁과 언론의 전략적 대응

1) 프레임 경쟁에 대한 기존 연구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슈가 복합적인 가치와 관련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레임은 필수적으로 관점과 내용의 선택을 동반한다는 엔트만(Entman, 1993)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뉴스 프레임 연구를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언론의 프레임이 다양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가치와 견해가 대립하면서 갈등 담론이 형성되고 대립하는 현실이 있고, 그런 현실을 반영하거나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언론의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뉴스의 프레임 경쟁은 언론의 프레임링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상이다.

언론의 프레임링을 국면별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프레임 경쟁은 국면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예를 들어, 밀러와 리처트(Miller & Riechert, 2001)는 ‘기회의 나선형 이론’을 통해 프레임의 충돌 과정을 시작단계, 개념 정의 및 대립 단계, 공명 단계, 평정 또는 해결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동훈과 김원용(2012, pp. 97~114)은 사안의 전개과정을 잠재기, 점화기, 고조기, 쇠퇴기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프레임 형성기, 경쟁기, 주도기, 쇠퇴기 등이 나타남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프레임 경쟁이 전개되다가 합의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배적인 프레임이 등장하는 과정을 기술한 연구들이 있다.

위와 같은 종단적 분석이 아닌 일반적 프레임 연구에서도 2개 이상의 복수 프레임의 경쟁을 제시하고 그들 간 대립에 주목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Entman, 2003, 2004; Gamson & Lash, 1983, Gamson & Modigliani, 1989; Miller & Riechert, 2001). 갠슨과 모딜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하나의 사안에 하나의 공공담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담론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지배적 담론에는 그에 대응한 ‘도전자 담론’(challenger discourse)이 있다고 했다. 언론담론이란 사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의미요소의 집합’(interpretive packages)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은 언론 담론의 해석적 틀로서 기능하는 바, 담론의 다양

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된다.

뉴스 프레임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론적 프레임 연구에서도 프레임 경쟁에 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있다(Benford, 1993; Benford & Snow, 2000; Coles, 1998; McCaffrey, 2000; Meyer, 1995; Zuo & Benford, 1995). 이런 연구들은 집단행위 프레임이 생성, 발전, 정교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프레임과 경쟁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사회운동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상대방, 제 3자, 혹은 언론들은 때때로 사회운동의 프레임과 상반되는 대응프레임을 만들어내며, 대응프레임은 이차적으로 다시 프레임ING(reframing) 되기도 하면서 프레임 간에 경쟁을 형성한다고 한다(Benford & Snow, 2000). 예컨대, 맥카프리(McCaffrey, 2000)는 사회운동과 대항운동이 경쟁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쟁을 형성하는 양 집단들이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동시에 반대집단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구사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극화-비방’(polarization-vilification), ‘프레임 폭로’(frame debunking), ‘프레임 구원’(frame saving) 등 다양한 프레임이 경쟁하게 된다.

기존 프레임 연구를 보면 각 접근방법에 근거한 이론적 설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경쟁 상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우리는 이런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프레임 경쟁이 언론에 대해 갖는 함의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물론 프레임 경쟁에 대한 텍스트 분석적 접근과 사회운동론적 접근은 프레임 경쟁을 지배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해서 프레임 경쟁의 문제점을 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집단과 언론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데올로기의 유지 혹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형성이란 목적으로 일방향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프레임ING 행위자들의 행위와 전략에 초점을 맞춰 프레임 경쟁을 바라봄으로써 프레임 경쟁이 불러오는 사회적 의미와 실천적 기능을 검토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겠다.

2) 프레임 경쟁과 전략적 프레임ING

(1) 프레임 경쟁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

언론의 고유한 기능을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프레임 경쟁의 사회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버마스(Habermas, 1992/2007, p. 425)에 따르면 제도화된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은 일상적 언어라는 공통 코드로 연결된 비공식적 의사소통 권력의 투입에 의존한다.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정치체계는 그 자체로 폐쇄된 체계가 아

나라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기능한다. 여기서 공론장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로 역할하며 행정적인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권력의 핵심적 영역의 주변부에서 정치체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대중들에게 문제화시키면서 정치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정치적 행위자는 공론장을 거치면서 담론적으로 산출된 공적 의견을 견지하며 “민주주의 의지형성과 의견형성의 제도화된 절차라는 필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Habermas, 1992/2007, p. 446).

숙의민주주의에서 공론장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람직한 공적의견의 형성 여부가 일반 개인들의 동의가 중첩적으로 쌓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인 형식적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기인한다(Habermas, 1992/2007, p. 435).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된 담론이 절차적인 합리성을 충족시킬 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절차적 강제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론장 기능의 성공적인 수행여부는 절차적인 형식적 기준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정한 가치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의 다원화는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의 기본 활동의 결과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된 합리성 없이 언론의 지배적 프레임이 등장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반영하는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언론이 애초에 공론장 기능을 잘못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프레임 경쟁이란 공론장을 통한 비공식적 의사소통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절차적 과정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프레임 경쟁을 의사소통의 민주적인 합의 절차에 있어 형식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레임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 프레임 경쟁의 반대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프레임 지배 현상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프레임 지배가 정당한 프레임 경쟁을 통해 형성된 현상이라면 대중들의 담론적 합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쟁 없이 일방적으로 형성된 프레임의 지배가 문제이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프레임 지배를 문제 삼을 수 없다.

(2) 권력 집단의 전략적 프레임링

초기 프레임 연구를 발전시켰던 텍스트 분석적 접근은 프레임 형성을 권력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언론은 제도적 권력 구조에 의존하여 ‘현재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뉴스 제작과 전파를 통해 담론적으로 기여를 한다(Gitlin, 1980; Tuchman, 1978). 이들 주장에 의하면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작용 자체가 권력 집단의 프레임링 전략을 따르는 일이며, 따라서 대항적인 프레임을 뉴스에

서 발전하기 어렵다. 결국 언론활동 자체가 프레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체계가 발전하면서 체계 내의 하위체계들 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각 하위체계가 각자의 가치와 이념을 정상적인 것으로 규범화하면서 권력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단일하고도 결속력 있는 합일체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 권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하위체계의 행위자들이 각자 조직과 제도의 특수 영역과 행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실현하려 한다. 결국 권력 집단들이 달성하려는 정치적 이익과 목적은 하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언론에 드러나는 다양한 집단의 전략적 프레이밍 역시 지배 권력의 공고화라는 단순한 시각, 또는 지배 권력과 대항 세력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경쟁 관계를 벗어나 접근해야 한다.

팬과 코시키(Pan & Kosicki, 2001)는 프레이밍을 ‘담론 공동체’(discursive community) 형성을 위해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과정으로 본다. 점에서 프레이밍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론화했다(이준웅, 2000). 프레임은 행위자들 속에 형성된 공통의 스키마를 기준으로 분류 경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영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담론공동체 내에서 행위자들은 관습 및 전략적 규칙들을 공유하고 손쉽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져진 공동체로서의 결속력과 응집성은 집단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 즉, 프레이밍은 자신을 지지하는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집단의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공적 숙의의 장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프레임 경쟁이라는 가능성이 보장된다.

충(Chong, 2000)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프레이밍을 활용하는 정치적 집단의 전략을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으로 설명한다. 이 설명은 사회운동조직과 구성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프레임 전략을 분석한 사회운동론적 연구들의 논의를 정치적 집단과 여론 간의 관계로 확장시킨 것이다(Chong & Druckman, 2007). 사회 구성원은 ‘준거 프레임’(frames of reference)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정립하면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집단의 지도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규범, 가치, 관심, 상징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 집단의 지도자는 추상적이며, 표면상으로 중립적인 원칙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활용한다. 레빈(Levin, 2005)은 충(Chong, 2000)이 제시한 합리적 행동 모델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와 평화운동단체,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들이 활용하는 가치와 전략들을 분석했다. 그는 특히 장기적인 전략과 구분되는 전술적 프레임(tactical frames)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프레임 경쟁 상황에서 정치적 집단들이 단기적으로 구성하는 담론 전략의 일환으로 형성된다.

정리하면 프레임링은 정치적 집단에 의해 조작되는 전략적 행위이며(Pan & Kosicki, 2001), 담론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적 집단들마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스스로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전략적 프레임링을 활용하는 다수 집단의 존재는 프레임 경쟁을 저하시키기보다 오히려 프레임 경쟁을 유발시키는 유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3) 언론의 전략적 보도 양상

프레임을 형성하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권력집단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는 결국 프레임을 형성하는 언론의 선택의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언론은 뉴스 생산에 있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프레임 경쟁을 유도하여 공론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옌가(Iyengar, 1991)는 같은 사회적 사건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 피해자에 중점을 두는 ‘일화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주제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런 뉴스 프레임은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카펠라와 제이미슨(Cappella & Jamieson, 1997)은 정치적 뉴스의 구성방식으로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쟁,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프레임’(strategy frame)과 정책에 대한 정보, 정치적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에 집중하는 ‘이슈 프레임’(issue frame)을 구분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보도방식이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 집단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옌가와 카펠라 등의 연구는 결국 같은 사안이라도 언론의 프레임링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이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이 상이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런 연구는 그러나 프레임링 결과에 따른 시민에 대한 효과에 집중할 뿐, 프레임 생산자가 어떤 전략적 고려에 따라 프레임링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하지 않는 문제를 보인다. 우리는 뉴스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레임링 행위자들, 즉 언론과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언론의 기사 쓰기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레임 생성 과정에서 언론이 활용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가) 언론의 자율성을 토대로 권력을 감시하고 뉴스 생산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화 전략과 (나) 권력 집단이 제공하는 뉴스 공급원에 의존하는 방어적 전략이다. 언론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에 독립해서 활동하느냐, 아니면 권력에 의존하느냐는 방식에 따라 언론의 프레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언론의 이 두 전략은 모두 언론의 객관주의 규범과 내용적으로 일치하지만, 객관주의 규범을 실행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객관주의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기자들 개인의 가치를 배제시키는 대신 정치권력이나 내·외재적인 요소에 초탈하여 개인이 독립적으로 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율성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Gans, 1979, pp. 183~188). 이때 객관주의 규범은 뉴스 생산 주체로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전문적인 직제로서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언론의 근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언론은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경력을 강화시키고 대중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 파수견과 같은 이미지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울프스펠드(Wolfsfeld, 1997)는 언론이 권력 부패 프레임이나 무고한 희생자 프레임과 같은 프레임을 관행적으로 생산해내면서 정부 반대 세력들에게 이득을 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때로 기존의 권력이 부패하였다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부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며, 무고한 희생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맞춰 정치적 갈등의 상황과 책임의 대상을 규정하기도 한다.

반면, 터크만(Tuchman, 1972)은 기자들이 대중들의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관례적인 절차로 객관화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은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부담과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한다. 정확한 기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자들은 정해진 기사 작성 마감시간 내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며, 진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자칫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따라서 뉴스 정보원의 진술에 따라 기자의 개인적 가치를 분리시키고 기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쓰는 것은 기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용희(2007)는 터크만(Tuchman, 1972)의 논의가 국내 해설 기사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객관화 전략으로 “해설기사 담론의 형식적인 구조화, 피동형 서술어의 빈번한 사용, 인용의 편의적 활용, 전문가의 선택적인 채택과 전문가의 일반화”를 제시했다.

프레임 경쟁을 유도하고 공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역할을 고려하면, 언론의 두 전략이 갖는 차이는 분명하다. 후자인 방어적 전략의 경우,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서 언론은 여전히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며 프레임 경쟁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갈등을 그대로 대중들에게 표상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집단의 프레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피드백 작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권력 집단 이외의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권력과의 깊은 유대로 인해 형성되는 방어적 전략은 프레임 경쟁에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참여를 통한 공적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집단의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프레임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전자인 전문화 전략은 언론의 직업적 동기를 높이고 정치적 집단의 의견 외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끌어들이고 프레임 경쟁을 유발시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

3. 연구문제

1) 뉴스 프레임의 구성과 시기에 따른 프레임 경쟁양상

우리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불거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관할 논쟁에 대한 뉴스 프레임에 주목했다. 당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수사 지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규정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논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언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수사권 논쟁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을 두고 다른 이야기로 구성된 뉴스 프레임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프레임 경쟁 상황이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 경쟁 양상을 파악하기 전에, 언론이 검·경 수사권 갈등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프레임 빈도와 다양성을 기준으로 프레임 경쟁의 시기구분을 하고, 각 뉴스 프레임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리 등장하는지 검토하고자 했다.

- 연구문제 1: 검·경 수사권 갈등을 언론은 어떤 뉴스프레임으로 보도했는가?
- 연구문제 2: 검·경 수사권 갈등에서 나타나는 프레임 경쟁의 양상은 어떠한가?

2)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기사 타당성 확보 전략

우리는 또한 다양한 프레임이 경쟁하는 시기에 언론이 어떻게 기사 타당성을 확보하려 하는지 검토하려 한다. 언론의 공론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언론이라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다양한 관점이 교차되는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은 사실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정보원을 인용하는 등 타당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프레임 경쟁기에는 프레임 비경쟁기에 비해 기사의 근거를 더욱 명료하거나 타당성 있게 제시하려 한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사의 타당성이란 “기사가 제시하는 주장이 확인 가능한 근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이준웅·김경모, 2008).

언론이 프레임 경쟁기에 기사의 근거제공을 타당하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이유를 프레임 형성의 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주체인 주요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는 언론의 전략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프레임 경쟁기에 정치적 집단 등 주요 행위자는 뉴스 프레임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안에 관한 정보를 부단히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Miller & Riechert, 2001). 언론인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사의 타당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집단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프레임 경쟁기에 기사의 타당성은 증가할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언론은 프레임 경쟁기에 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다. 프레임 경쟁기일 경우 비경쟁기에 비해 언론의 자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치권력의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스스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기자의 동기가 강하게 발현된다(Entman, 2004).¹⁾ 따라서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인은 주

1) 엔트만(Entman, 2004)은 정부의 프레임이 대중들의 지배적인 해석틀에 일치(cultural congruence) 하는가에 따라 ‘일치’(congruence), ‘모호’(ambiguous), ‘불일치’(incongruent)로 상황을 구분하고, 정부의 프레임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자들은 직업적 동기가 많이 개입된 기사를 작성하며, 정부는 언론을 조절하기 위해 기자의 직업적·관행적 동기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배적인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프레임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프레임과 대중들의 해석틀 사이의 일치 정도가 모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언론의 자율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진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증가하는데(Wolfsfeld, 1997), 프레임 경쟁 상황에서는 어느 한 권력집단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

요 행위자의 주장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인용의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제시할 것이다. 그 결과, 프레임 경쟁기에 기사의 타당성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는 객관주의적 언론규범을 사용함으로써 주요 행위자의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Tuchman, 1972). 요컨대, 프레임 경쟁 시기에서는 갈등적 이슈에 관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되기 때문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반론보도청구나 명예훼손 소송, 내부적 징계를 피하기 위해 기사의 타당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연구문제 3: 프레임 경쟁 시기에 따라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1: 프레임 경쟁기에는 프레임 비경쟁기에 비해 기사의 타당성이 높이 나타나는가?

3) 프레임 경쟁시기에 따른 익명정보원 사용

우리는 또한 프레임 경쟁기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전략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익명정보원 사용빈도를 보기로 했다. 만약 언론이 방어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면, 권력집단의 보복을 피하고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반면 전문화 전략을 사용한다면, 언론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정보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익명정보원 사용빈도가 감소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권력 기관이며 이들 간의 대립이 첨예화하는 경우, 언론이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프레임 경쟁기에 익명정보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우리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언론의 연동관계, 정치적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조동시와 양승혜(2006)의 연구를 보면, 기자가 익명정보원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원 보호’, ‘정보원의 요구’, ‘정보원으로부터의 항의, 소송 방지’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익명정보원을 활용하는 기자들의 목적이 주로 방어적 전략과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언론은 정보원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집단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 의존하는 언론은 특히 정보 전달보다 정치 집단과의 관계 유지에 주의를 기울

라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처리·유통에 관한 언론의 재량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면서, 결국 정치적 집단들 간의 경쟁이 형성되는 프레임 경쟁기에 주로 방어적 전략을 활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익명보도는 정보원을 보호함으로써 기자와 정보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공헌할 수 있다(Duffy & Freeman, 2011). 따라서 언론의 익명보도가 공익을 보장할 때 얼마든지 익명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용되거나 기자의 편에 의해 관행적으로 사용될 경우, 언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자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익명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언론이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터크만(Tuchman, 1978)도 기자가 사실성의 입증을 제 3자에게 전가시켜 공신력을 더하는 한편 입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익명정보원을 활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4: 프레임 경쟁 시기에 따라 익명정보원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4-1: 프레임 경쟁기에는 프레임 비경쟁기에 비해 익명정보원이 많이 나타나는가?

5.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명박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을 연구소재로 삼았다. 이 갈등은 2010년 2월 18일 사개특위의 설치로 시작되었지만, 2011년 5월 26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는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기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²⁾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 지도부들의 설전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본격화된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발언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일인 2012년 12월 19일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공명하여 주목을 받았고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 및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보도는 총 21건으로 1개월당 1.4건에 불과하다

검·경 간의 수사권 갈등은 그 동안 물 밑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부 기관간의 대립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정부기관 대 민간단체가 아닌 공적으로 경쟁하는 정부기관 간의 갈등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부기관 대 민간단체의 경우 언론은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원용·이동훈, 2005; 양정혜, 2001). 우리는 두 정부기관 간의 갈등에서는 두 집단의 입장에 맞춘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다루기 때문에 프레임 경쟁과 그에 따른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적 집단 간의 갈등으로 권력 간 긴장 상태를 보이는 사안이기에 정보원 및 익명정보원을 통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³⁾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 사이트인 KINDS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전국종합일간신문 10개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의 검·경 수사권 논쟁 관련 기사를 추출해서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 사실타당성, 정보원, 익명정보원 등을 측정했다. 개별 기사들을 읽어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과 관련 없이 검색어가 단순 언급된 기사는 제외한 결과 분석 대상 기사는 총 254개였다. 모든 면과 기사장에서 기사를 추출했으며 검색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사용했다.

2) 자료 분석방법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프레임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이준웅(1997, 2005)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준웅(1997, 2005)은 버크(Burke, 1945)와 반 다이크(Van Dijk, 1988)의 논의를 바탕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구성요소로 ‘주요행위자’(행위자는 무엇을 했는가?), ‘대항 행위자’(대항 행위자는 무엇을 했는가?), ‘대상’(대상의 주요 속성은 무엇인가?), ‘방식’(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배경’(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가?), ‘함의’(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여섯 가지 ‘주제함수’를 설정한 뒤 각 주제 함수에 대입되는 뉴스진술문을 ‘주제진술’이라고 했다. 이들 주제함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으

3)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기사의 정보원 수는 기사당 평균 2.11로 나타났다. 정보원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에서 정보원의 기사당 빈도의 평균이 1.35(이재경·김진미, 2000), 평균 1.75(이재경, 2001)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기사당 익명 정보원 수의 평균은 0.98을 나타냈는데 박재영·이완수(2007)의 논문에서 국내 기사의 익명정보원 수 평균이 0.59에 머물렀다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치다.

로 들어가는 구성요소로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뉴스 이야기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한다. 주제진술은 요컨대 이야기의 기본적 구성 요소인 행위자, 대상, 방식, 배경, 함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의미의 벽돌”로 이해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이란 결국 “다양한 주제함수에 대한 주제진술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큰 이야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은 ① 행위자, ② 대항적 행위자, ③ 대상의 속성, ④ 행위의 구성 내용, ⑤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 ⑥ 행위의 맥락, ⑦ 행위의 의의와 함의 등의 주제함수(thematic function)를 기초로 구성되며 각 주제함수는 주제진술문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각 주제함수에 포함되는 주제진술문이 다른 주제함수의 주제진술문들과 상호 결합하는 패턴을 분석한다면 주제진술문 간의 결합으로 통해 형성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 자주 결합되어 쓰이는 주제진술문들은 특정한 주제진술문 집합을 형성하는데, 집합 속 주제진술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야기가 뉴스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전체 검·경 수사권과 관련 기사들의 1/2 정도를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27개의 주제진술문을 수집하고, 각 기사가 주제진술문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27(주제진술문 수) × 254(기사의 건수) 형태의 행렬을 구성했다. 이 행렬을 이용해서, 각 주제진술문 간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자료로 삼아 군집분석을 시행했다.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 주제진술문들은 기사에 자주 결합되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렇게 군집으로 형성된 주제진술문들의 집합이 곧 뉴스의 이야기구성, 즉 뉴스 프레임이 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시계열적으로 등장하는 기사들과 그에 나타나는 주제진술문의 빈도를 구하여 시간에 따른 각 프레임 유형 빈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었다. 여기서 프레임 유형의 빈도는 해당 프레임 유형을 구성하는 각 주제진술문이 기사에 나타나는 횟수를 의미한다. 기간에 따른 프레임 경쟁 양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중요사건에 따른 갈등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프레임 다양성 및 프레임 빈도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간을 5개의 기간으로 구분했다. 이 기간들은 프레임 경쟁의 맥락과 정도에 따라 프레임 경쟁기, 프레임 균형기, 프레임 지배기, 프레임 쇠퇴기로 명명했다.

3) 주요 변인의 측정

(1) 프레임 경쟁시기

프레임을 ‘독자나 시청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으로 정의하고, 프레임 경쟁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이야기 구성방식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규정했다. 따라서 프레임 경쟁기는 프레임들의 빈도가 높은 동시에 프레임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기를 지칭한다. 프레임 경쟁기를 좌우하는 요소는 프레임 빈도의 총합(F)과 프레임의 다양성(S_{rel})이다.

$$\text{프레임 빈도의 합: } F = \sum_{i=1}^n f_i$$

n = 프레임 유형의 개수

f_i = I번째 프레임 유형의 빈도수

〈수식 1〉 프레임 빈도의 총합

여기서 프레임 빈도의 총합(F)은 각 유형의 프레임 빈도(f_i)를 모두 합한 값이다. 프레임 유형의 빈도(f_i)란 해당 프레임을 구성하는 개별 주제진술문들이 해당 기사에 나타나는 횟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프레임 빈도의 단위는 개별 주제진술을 반영하는 문장 또는 구절이며, 프레임 빈도란 그런 문장 또는 구절이 일정 기간 동안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정도가 된다.

우리는 또한 프레임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브릴린(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을 활용했다.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엔트로피가 큰 무질서 상태로 비가역적 현상을 일으키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물체의 변화는 점점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결국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무질서, 복잡, 다양함을 의미한다. n 개의 프레임 유형에 분포되어 있는 F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집합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S = K \cdot \ln \frac{F!}{f_1! f_2! \dots f_i! \dots f_n!}$$

여기서 S = 프레임 경쟁에서 나타나는 프레임들의 엔트로피

$$K = 1 / \ln 2$$

F = 프레임 빈도의 총합

n = 프레임 유형의 개수

f_i = i번 째 프레임 유형의 빈도

〈수식 2〉 프레임 유형에 따른 엔트로피 공식

이 공식에 따르면 S의 최소값 S_{\min} 은 0이며(어떤 $f_i = F$ 일때), 최대값 S_{\max} 는 $K \cdot \ln F!$ (모든 f_i 가 1일 때)이다.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대적 다양성 S_{rel} 에 관한 공식을 유도 할 수 있다.

상대적 다양성 공식은 프레임 빈도의 총합(F)이나 프레임 유형 개수가 적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집의 크기가 다른 두 집합들의 다양성을 비교하거나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는 한 집합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Shaw, 1979; 김현희, 1987에서 재인용). 특히 엔트로피를 이용한 다양성 지수는 프레임 비율로 다양성(절대적 다양성)을 구하는 허핀달 지수나 심슨의 D와는 달리, 전집의 크기도 반영하기 때문에(상대적 다양성) 프레임 경쟁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S_{\text{rel}} = \frac{S}{S_{\max}}$$

여기서 S = 프레임 경쟁에서 나타나는 프레임들의 엔트로피

$$S_{\max} = K \cdot \ln F! (\text{집합 내의 모든 } f_i \text{가 1일 때})$$

〈수식 3〉 프레임의 상대적 다양성

(2) 기사의 타당성

이 논문은 기사 타당성을 ‘기사가 제시하는 주장이 확인 가능한 근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여부’로 규정했다(이준웅 · 김경모, 2008). 이렇게 규정하면, 기사 타당성이란 사실로서의 검증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언론의 객관주의 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로젠스틸과 코바흐(Rosenstiel & Kovach, 2007)는 검증 가능성의 원칙으로 “① 자료 없는, 근거 없는 내용을 무단으로 더하지 말 것이며, ② 이용자의 오해를 유도할 수 있는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뉴스를 삼가고, ③ 정보원, 자료, 방법 등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④ 남의 기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이

〈표 1〉 기사 타당성의 두 차원

타당성 차원	언론의 실행규칙	구체적 판단기준	측정 방법
사실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이지 말 것” •주장의 근거 제공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기사의 전체 문장 수 대비 사실 문장 수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육하 원칙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한 문장)
정보원 제공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할 것” •정보원 및 정보 수집의 근거 제공 	독자가 사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근거를 모두 포함시켰는가?	기사에 나타나는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 수를 통해 판단

고 독창적으로 스스로 뉴스를 제작하며, ⑤ 자신의 판단이나 추론에 대해 조심하고 겸손할 것”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하지만 이들 원칙은 취재 기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가) 사실 타당성과 (나) 정보원 제공 타당성으로 구분했다.

첫째, 사실 타당성이란 기사를 일종의 이야기 구조로 볼 때, 기사 전개 배경이 되는 사실적 명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뉴스 이용자에게 사실적 근거 제공함으로써 기사 내용이 타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확하고 분명한 뉴스를 제공하여 독자의 오해를 줄인다는 점에서 검증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정보원 제공 타당성은 기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는 독자가 보아도 합리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근거를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 제공의 타당성은 정보 혹은 가치의 편향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연관되지만, 인용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기에 뉴스의 사실 타당성과는 구분된다.

우리는 사실 타당성을 뉴스의 핵심 주장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가 얼마나 많이 제시되는가로 보고 기사의 전체 문장 수 대비 사실 문장 수로 측정했다. 사실 문장이란 기자의 주관에 개입되지 않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문장을 일컫는다. 정보원 제공 타당성은 뉴스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근거를 모두 제시하는 것으로 정보의 편향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을 통해 측정했다. 정보원 진술이 들어간 문장 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정보원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부호만을 사용하는 유사인용의 경우, 정보원 수나 정보원 진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코더 간 신뢰도

코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체 기사의 7%에 해당하는 18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3명의 코더들이 중복 코딩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스 카파(Cohen's kappa)의 변형된 형태로 코더들이 3명 이상일 때 활용되는 플레이스 카파(Fleiss's kappa) 계수를 적용했으며, 평균 0.83⁴⁾을 얻었다.

6. 연구결과

1) 뉴스 프레임의 구성

사전에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뉴스를 읽고 42개의 상호배제적인 주제진술문들을 추출했다. 이들 주제진술문은 ‘주요행위자’, ‘대상’, ‘방식’, ‘배경’, ‘시민들에 대한 함의’, ‘전망’이라는 각각의 주제합수를 구성한다. 즉, 각 주제합수는 기사에 제시된 이야기 구성의 하위요소로서 이에 속하는 주제진술문은 단순히 언급되는 사실을 넘어 상호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기사에 내포된 이야기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254개의 기사가 기본적으로 추출된 42개의 주제진술문들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사에 포함되는 빈도가 지나치게 적거나 다른 주제진술문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진술문, 용어에 혼란이 있어 코더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제진술문들은 코더들 간의 상의 하에 배제했다. 그 결과 총 27개의 주제진술문을 확정했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확정한 주제진술문들이 각 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코딩해서 27(주제진술문) × 254(분석대상 뉴스기사)의 자료 행렬을 구성했다. 이 행렬을 27 × 27 주제진술문 간의 거리척도(the dice measure) 행렬로 변환했다. 이 거리척도 행렬을 자료로 삼아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서 같은 군집에 묶인 주제진술문들은 다른 주제진술문들에 비해 기사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여러 주제진술문들의 집합체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뉴스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 군집분석 결과, ‘밥그릇

4) 기사의 사실타당성 0.82, 정보원 수 0.85, 정보원 진술 0.86, 익명정보원 수 0.90, 익명정보원 진술 0.81, 프레임 0.74(밥그릇 0.78, 견제와 균형 0.73, 국민 인권 0.84, 수사 지휘 0.61)를 나타내었다.

〈표 2〉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나타난 주제함수와 주제진술문

-
- A. 주요행위자: 검찰 혹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 a1.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다.
 - a2. 검찰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 a3. 검찰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일탈과 해이가 심하다.
 - a4.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a5.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a6. 경찰의 수사능력과 도덕성이 예전보다 향상되었다.
 - a7.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
 - a8. 검찰은 경찰이 가진 수사독자성을 침해하고 있다.
-
- B. 대상: 수사권 조정은 무엇인가?
- b1. 수사권 조정은 국민보호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 b2. 수사권 조정은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형사시스템을 수정한다.
 - b3.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 b4. 소추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 b5.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 b6.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 b7. 경찰의 내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독자적 영역이다.
 - b8. 내사범위 축소는 잘못된 수사관행 철폐, 절차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
 - b9.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성을 훼손한다.
-
- C. 방식: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는가?
- c1. 수사권 논쟁으로 두 기관의 감정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 c2. 검찰과 경찰이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하고 있다.
 - c3.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 c4.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줘서는 안 된다.
-
- D. 배경: 어떠한 맥락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는가?
- d1. 검찰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d2.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
- E. 시민들에 대한 함의
- e1. 검찰과 경찰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 e2.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
- F.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전망
- f1.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f2.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

프레임’, ‘견제와 균형 프레임’, ‘국민 인권 프레임’, ‘수사 지휘 프레임’ 이상 4개의 프레임을 확인했다. <표 3>은 4개의 군집에 속한 주제진술문과 해당 주제진술문을 연결한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4개의 프레임을 따르며, 이런 프레임은 또한 법치국가 이념실현,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효율성 및 적법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들과 관련성을 보인다.

<표 3> 군집분석 결과: 주제진술문의 재구성

군집	뉴스 프레임
1	<p>밈그릇 프레임(주제진술문 e1, c2, c3, f1, b5의 군집)</p> <p>수사권을 두고 벌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정쟁은 밈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두 기관은 국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고 있으며, 그들의 논리 역시 정작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간 정쟁은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해결될 필요성이 있으며 수사권 조정 논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고 중재를 시도하기 시작하자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p>
2	<p>견제와 균형 프레임(주제진술문 a2, d1, b4, a3, a5, a1의 군집)</p> <p>검찰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검찰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소추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p>
3	<p>국민 인권 프레임(주제진술문 b1, b2, f2, a4, a7, d2, a6, e2, c4의 군집)</p> <p>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으로 인한 불합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인권과 직접 연관된 것이지만 밈그릇 싸움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과거에 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도덕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은 국민 인권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경찰은 수사의 대부분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두 기관이 서로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항변한다.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경찰의 자질은 아직 부족하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p>
4	<p>수사 지휘 프레임(b6, b7, b8, b3, b9, a8, c1의 군집)</p> <p>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경찰이 수사독자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 기관 간의 감정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을 정하기 앞서 마련된 조정안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오던 경찰의 내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가 검찰의 수사 지휘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독자적인 영역이란 점을 들어 내사에 대한 검찰 지휘를 인정한 조정안이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철폐시키고 수사 상의 절차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사 지휘는 필요하나,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2) 검·경 수사권 관련 뉴스 프레임의 경쟁 양상

프레임 경쟁은 갈등의 표출과 소강 이외에 정치적 행위자 및 언론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다양성과 빈도를 기준으로 프레임 경쟁 시기를 규정했다. 앞서 <수식 1>에서 제시했듯이 프레임 빈도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프레임에 속한 주제진술문을 반영하는 문장 또는 구절이 등장하는 횟수이다. 다양성은 <수식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일단 프레임 빈도가 낮고 프레임 다양성이 높은 기간2와 기간4는 프레임 균형기로 규정했다. 이는 엔트만(Entman, 2004)이 프레임 지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균형(parity)라는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특히 기간2는 다양한 뉴스 프레임이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국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간1과 기간3은 프레임 빈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프레임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프레임 다양성이 높은 기간1은 프레임 경쟁기로,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간3은 프레임 지배기로 유형화했다. 기간5에서는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으로 수사권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일단락되었고, 2012년 대선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방안으로 화제가 옮겨간다는 점에서 프레임 쇠퇴기로 명명했다.

결국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5개의 기간 동안에 프레임 경쟁-균형-지배-균형-쇠퇴가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했다. 기간1에 다양한 프레임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다가 기간2에 들어서는 프레임 빈도가 줄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후 기간3 프레임 경쟁기를 지나서 균형을 거쳐서 쇠퇴했던 것이다.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검경갈등 초반에는 4개의 뉴스 프레임이 상호 경쟁하다가, 수사권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대두했다. 이후 사안이 진행되면서 균형을 거쳐서, 쇠퇴기를 맞는데 이 시기인 기간5에는 상대적으로 ‘견제와 균형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4>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간별 특징

기간	기사 번호	기사 건수	날짜	프레임 다양성	프레임 빈도(평균)	프레임 경쟁 시기
기간1	1~38	38	2011. 5. 26~6. 23	0.3239	72.53	프레임 경쟁기
기간2	39~89	51	2011. 6. 24~11. 20	0.3198	19.65	프레임 균형기
기간3	90~144	55	2011. 11. 21.~12. 4	0.2232	74.85	프레임 지배기
기간4	145~194	50	2011. 12. 5.~12. 1. 9	0.2998	23.94	프레임 균형기
기간5	195~254	60	2012. 1. 10~12. 19	0.2554	16.50	프레임 쇠퇴기

3) 프레임 경쟁 시기에 따른 기사의 타당성과 익명 정보원

각 기간에 해당하는 기사들의 사실 문장의 비율, 정보원 수, 정보원 진술, 익명정보원 수, 익명정보원 진술을 대상으로 일원변량 분석(ANOVA)을 실시했다. 각 기간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쉐페(Scheffe)의 다중비교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기간3(지배기)과 4(균형기)에 사실 문장 사용의 비중이 높은 반면($M=.70$), 기간2(균형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실 문장 사용의 비중이 낮았다($M=.56$). 프레임 경쟁기라고 해서 사실 문장의 사용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지배기나 균형기에 비해 낮은 결과이다.

프레임 경쟁기인 기간1에 정보원 수($M=2.63$)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프레임 균형기인 기간2와 4에는 정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각각 $M=1.92$, $M=1.68$). 한편 정보원 진술의 수도 프레임 경쟁기인 기간1에 상대적으로 높았지만($M=3.29$), 그 차이가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익명정보원의 수($M=1.29$)와 익명정보원 진술($M=1.45$)도 프레임 경쟁기인 기간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다른 4시기와 개별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익명정보원의 사용에서는 프레임 균형기(기간2와 4) 그리고 쇠퇴기(기간5)에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오는 패턴을 보였다. 익명정보원 진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패턴이었다. 다만 이런 평균값의 차이의 패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달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정보원 사용을 보면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얻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는 정보원 수의 사용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사실 문장의 비율은 가설 방향과 일치된다고 할 수 없는 결과였다.

프레임 경쟁 시기 중 기간2와 기간4는 모두 프레임 경쟁기이므로 이를 동일한 성격으로

〈표 5〉 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간에 따른 기사의 타당성과 익명정보원 차이 분석 결과

요인	기간1: 경쟁기 ($n=38$)	기간2: 균형기 ($n=51$)	기간3: 지배기 ($n=55$)	기간4: 균형기 ($n=50$)	기간5: 쇠퇴기 ($n=60$)	F값	유의도
사실타당성	.61	.56 ^{ab}	.70 ^a	.70 ^b	.62	4.165	.003
정보원수	2.63	1.92	2.38	1.68	2.12	2.408	.050
정보원 진술	3.29	2.67	3.33	2.64	2.93	1.299	.271
익명정보원 수	1.29	.96	1.16	.86	.82	1.179	.321
익명정보원 진술	1.45	1.10	1.33	.96	.93	1.092	.361

주: 같은 첨자 a, b는 Scheffe 다중비교에 의해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6〉 프레임 경쟁기, 균형기, 지배기에 따른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 차이 분석 결과

요인	프레임 경쟁기 (<i>n</i> = 38)	프레임 균형기 (<i>n</i> = 101)	프레임 지배기 (<i>n</i> = 55)	F값	유의도
정보원 수	2.63 ^a	1.80 ^a	2.38	4.515	.012
정보원 진술	3.29	2.65	3.33	2.681	.071

주: a는 Scheffe 다중비교에 의해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갖는 시기로 보아 묶어서 분석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 쇠퇴기는 특수한 국면이라고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여, 3시기(경쟁기, 균형기, 지배기)를 독립변수로 삼아 변량분석을 수행했다. 프레임 경쟁기(기간1)와 지배기(기간3)를 비교한 경우, 프레임 경쟁기의 정보원 수($M=2.63$, $SD=1.79$)와 프레임 균형기($M=1.80$, $SD=1.30$)의 정보원 수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보원 진술의 유의도도 .071를 기록했다(〈표 6〉 참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량이 많은 기사는 분량이 적은 기사에 비해 당연히 정보원 수와 진술이 많기 때문에 프레임 경쟁기이나 비경쟁기이나에 상관없이 단순히 기사의 분량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정보원의 수와 진술 및 익명정보원의 수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사의 분량과 상관없이 프레임 경쟁 시기에 따라 기사의 타당성 및 익명정보원 활용이 달라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의 글자 수를 통제하고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했다.

기사의 글자 수를 통제하고 기간에 따른 기사의 타당성과 익명정보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프레임 기간의 구분은 기사의 사실타당성($F=4.069$, $p<.01$, $\eta=.062$)과 정보원 수($F=2.544$, $p<.05$, $\eta=.026$)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기사의 글자 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유의도가 작거나 같았다. 따라서 기사의 타당성과 익명정보원은 단순히 기사의 글자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경쟁이라는 기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표 7〉 참조).

프레임 경쟁기와 프레임 지배기 사이에서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의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석한 정보원의 종류를 검토해 보면, 프레임 경쟁기에 보다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레임 경쟁기에는 경찰(32%) 뿐만 아니라 검찰(27%), 정부관계자(19%), 국회의원(13%), 대통령(6%), 국무총리(2%), 교수(1%) 등 다양한 정보원들 뉴스에 등장했다. 그러나 프레임 지배기에서는 경찰이 전체 정보원 수의 54%를 차지하면서 주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교수가 총 15번 정보원으로 등장하여 12%에 달했지만, 이 중 14번이 2011년 11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의 발언이었다. 검찰(15%), 정부관계자(8%), 국회의원(10%), 변호사(1%) 등 비율이었다. 프레임 지배기의 정보원은 경찰 인사로 편향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프레임 경쟁기와 프레임 지배기 모두 유사한 정도로 많은 정보원이 등장했지만, 정보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언론은 프레임 지배기보다 경쟁기에 더 다양하게 정보원을 사용했다.

〈표 7〉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간에 따른 타당성과 익명정보원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요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도
사실타당성	기사 글자 수	.002	1	.002		
	프레임 기간구분	.742	4	.185	4.069	.003
	오차	11.305	248	.046		
	합계	12.064	253			
정보원 수	기사 글자 수	18.300	1	18.300		
	프레임 기간구분	26.187	4	6.547	2.544	.040
	오차	638.274	248	2.574		
	합계	681.969	253			
정보원 진술	기사 글자 수	41.107	1	41.107		
	프레임 기간구분	26.277	4	6.569	1.681	.155
	오차	969.405	248	3.909		
	합계	1031.606	253			
익명정보원 수	기사 글자 수	.894	1	.894		
	프레임 기간구분	8.035	4	2.009	1.223	.302
	오차	407.374	248	1.643		
	합계	416.000	253			
익명정보원 진술	기사 글자 수	1.473	1	1.473		
	프레임 기간구분	10.189	4	2.547	1.136	.340
	오차	556.194	248	2.243		
	합계	567.449	253			

7.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뉴스 프레임의 등장 빈도와 다양성을 기준으로 프레임 경쟁 시기를 규정하고, 프레임 경쟁기에 나타나는 언론의 보도양식을 탐구했다. 이는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은 자율적 언론인으로서 사실 보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방어적으로 객관주의 규범에 따라 사실 보도에 전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언론이 프레임 경쟁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의 프레임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프레임 경쟁기와 프레임 비경

쟁기에서 나타나는 기사의 타당성 수준과 익명정보원 활용 수준의 변화를 검토했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경쟁 상황을 경험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언론의 보도를 검토함으로써 프레임 경쟁기 언론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기사를 이용해 뉴스 프레임을 추출한 결과, ‘밥그릇 프레임’, ‘견제와 균형 프레임’, ‘국민 인권 프레임’, ‘수사 지휘 프레임’ 등 4개 프레임을 확인했다. 이 프레임들의 등장 빈도와 다양성 수준에 따라 프레임 경쟁 시기를 규정한 결과 사안이 전개된 초기에는 다양한 프레임이 제시되어 프레임 경쟁이 형성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에 따라 특정 프레임으로 치우쳐져 프레임 지배가 확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언론은 초기에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검찰과 경찰을 비판한 ‘밥그릇 프레임’을 많이 제시한 반면, 갈등 국면에 접어들수록 검찰과 경찰의 전략이 담긴 프레임을 그대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임 경쟁 양상을 보면 프레임 경쟁기에서 바로 특정 프레임의 지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다양성이 높은 균형적 조정상태를 거치면서 결국 지배적 프레임이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언론이 갈등적 사안이 전개될 때, 갈등의 당사자의 주장들을 병렬적으로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관행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정보원 제공의 정도를 시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프레임 경쟁기에는 프레임 균형기와 프레임 쇠퇴기에 비해 정보원 수 및 정보원 진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레임 경쟁기에는 정치집단이 정치적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프레임 지배기의 경우,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의 빈도 면에서는 프레임 경쟁기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정보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로 특정 집단이 정보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프레임 경쟁기에는 다른 프레임 시기들에 비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원을 활용하기에 정보 제공의 타당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사타당성 중 사실타당성은 사태 전개의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실타당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반면 초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의결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반발이 나타나긴 했지만 검찰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논의를 유보시킴으로써 프레임 경쟁에서 조정으로 진행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프레임 지배기에는 정부의 강제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이 집단적인 수갑반납 운동으로 나타났고, ‘벤

츠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을 권력 비리의 온상으로 연결시키는 경찰관들의 발언⁵⁾이 이어지면서, 갈등 자체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 격화된 갈등 때문에 언론인들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따른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프레임 지배기와 2차 조정기인 이 시기에 사실타당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면, 언론인들이 검·경 간의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사실에 근거한 기사작성 전략을 사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경쟁시기와 익명정보원의 활용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기자의 성향, 언론사별 특징, 특정 사건과 정치적 집단의 이해 관련 정도, 정치적 집단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여부 등 익명 정보원 활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프레임 기간에 따른 익명정보원 활용에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익명정보원은 언론의 방어적 전략과 깊은 관계를 맺음을 알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이 현직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을 놓고 동시에 수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략) 대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를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에게 조사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중략) 검찰은 “이중수사 문제는 향후 인권침해 등 문제가 없도록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지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해 사건을 특임검사에 이송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검사가 걸려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특임검사를 지명할 셈인가”라고 비꼬았다(하략) (밀줄 저자 첨가, 강철원·김현빈 <한국일보> 2012. 11. 12).

이 기사는 “김광준 검사 비리 사건”이 초래한 이중수사를 두고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 기사에서 익명정보원의 진술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양측의 비난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런 기사는 양측의 갈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 같다. 갈등적 사안에 대해 토론과 이해의 장을 제공한다기보다, 익명정보원을 활용해서 갈등을 촉진하는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익명보도의 내용이 특별한 정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런 식의 익명정보원 사용

5)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벤츠 검사 사건은 검사가 변호사와 결탁해 경찰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한 단적인 사례”(신광영·주애진, <동아일보> 2011. 11. 30)

은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언론의 책임은 피하는 방어적 전략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언론의 익명정보원을 사용하는 경향은 이런 식의 ‘갈등적 사안에 대한 방어적 보도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보다 충분한 사례를 수집해 면밀히 분석한다면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의 방어적 전략에 따라 익명정보원의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표 5>에서 프레임 경쟁기 및 프레임 지배기인 기간1과 기간3에서 익명정보원 수 및 진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 보도의 타당성 수준은 높아진다.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제시하는 등 공론장 기능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등적 사안이 전개되면서 언론은 자율적인 프레임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균형적으로 프레임을 제시하기보다 특정한 프레임을 강조하는 등 프레임 지배를 주도하는 양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 집단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원을 이용하는 등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언론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공격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더욱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는 언론이 정치집단을 비롯한 주요 행위자의 프레임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검경 수사권 갈등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기에 한국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공론장 기능과 관련해서 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이 어떻게 전략적 보도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프레임 경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주요 행위자의 경쟁적 담론 전략의 전개를 서술적으로 제시하는 데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프레임 경쟁기 언론의 보도전략이 뉴스의 구성적 측면에 대해 갖는 함의를 다룬다는 의의를 갖지만, 이런 언론의 전략적 보도행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 전제와 관찰을 동원해서 설명했을 뿐 별도의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프레임 경쟁이 시민적 토론을 활성화시킨다는 이 연구의 이론적 전제 역시 경험적 검토가 필요하다. 언론의 다양한 프레임 제공과 그에 따른 공중의 다양한 해석적 틀의 형성으로 인해 활성화된 공론장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보해야 프레임 경쟁과 공론장의 활성화에 대한 보다 의미 있

는 이론적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남 (2001). TV방송의 사회갈등 조정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권 1호, 45~84.
- 김원용·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3.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157~208.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재영·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29~251.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이동훈·김원용 (2012).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재경 (2001).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관행: 한국과 미국 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 『보도비평』, 7호, 53~82.
- 이재경·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한국언론학회 2000년 봄철 정기 학술대회, 291~307.
- 이준웅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7호, 100~135.
- ____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85~153.
- ____ (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133~162.
- 이준웅·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67호, 9~44.
- 임양준 (2009). 집단적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용산참사에 대한 MBC, KBS, SBS 저녁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55~79.
- 조동시·양승혜 (2006). “익명보도 많은 편” 80.5%, 취재원의 42% 각 익명. 『신문과 방송』, 2006년 2월호, 8~18.

Benford, R. D. (1993). Frame disputes within the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Social Forces*, 71(3), 677~701.

Benford, R. D., & Snow, D. A.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611~639.
- Bennett, W. L. (1996).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White Plains, NY: Longman.
- Burke, K. (1945). *A grammar of motiv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ppella, J.,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ong, D. (2000). *Rational lives: Norms and values in politics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ng, D., & Druckman, J. N. (2007).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103~126.
- Coles, R. L. (1998). Peaceniks and warmongers' framing fracas on the home fro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39(3), 369~391.
- Duffy, M. J., & Freeman, C. P. (2011). Unnamed sources: A utilitarian exploration of their justification and guidelines for limited us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6(4), 297~31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2003). Cascading activation: Contesting the White House's frame after 9/11. *Political Communication*, 20(4), 415~432.
-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mson, W. A., & Lasch, K. E. (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 Sprio and E. Yuchtman-Yaar(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pp. 397~415). New York: Academic Press.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7.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Visions of the american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 of California Press.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 · 박영도 역 (2007).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D. (2005). Framing peace policies: the competition for resonant themes. *Political Communication*, 22(1), 83~108.
- McCaffrey, D. (2000). Competitive framing processes in the abortion debate: Polarization vilification, Frame Saving, and Frame Debunking. *The Sociological Quarterly*, 41(1), 41~61.
- Meyer, D. S. (1995). Framing national security: Elite public discourse on nuclear weapons during the Cold War. *Political Communication*, 12(2), 173~192.
- Miller, M. M., & Riechert, B. P. (2001). The spiral of opportunity and frame resonance: Mapping the issue cycle in news and public discourse. In Reese, S. D., Gandy Jr., O. H.,

- & Grant, A. E.(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Routledge.
- Pan, Z., & Kosicki, G. M. (2001). Framing as a strategic action in public deliberation. In Reese, S. D., Gandy Jr., O. H., & Grant, A. E.(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Routledge.
- Rosenstiel, T., & Kovach, B.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Completely Updated and Revised*.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Shaw, W. M. (1979). Entrop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ceedings of the ASIS*, 16, 32~37. 김현희 (1987). 엔트로피와 커뮤니케이션. 『도서관학논집』, 1권 1호, 9~24.에서 재인용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of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Wolfsfeld, G. (1997). *Media and political conflict: News from the Middle Ea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o, J., & Benford, R. D. (1995). Mobilization processes and the 1989 Chinese democracy move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1), 131~156.

최초 투고일 2013년 4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16일

논문 수정일 2014년 5월 26일

Frame Contest and Utilization of Unnamed Sources in News Media

Sang-Ryul Lee

M. 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e Woong Rh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ways in which news media constructed news stories during the period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police department in 2011-12. The notion of frame contest developed by Rhee (2010) was employed to account for the reasons news media strategically react to political actors who intent to influence news frames during socio-political conflicts. Two major strategies were identified: a proactive one constructing quality news stories with factual information and a defensive one utilizing unnamed sources in dealing with contested claims. In order to explore the degrees to which news media utilized these strateg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frame contest, we analyzed news stories in terms of the numbers of factual sentences, named sources, and anonymous sources. It was found that during the period of heightened level of frame contest, news media extensively sought out factual information and named sources to justify their storylines.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number of unnamed sources was found across the periods of different levels of frame contes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ole of news media in socio-political conflicts.

Keywords: news frame, framing, frame contest, anonymous sources, factual reporting,
news media, public sphere